



	<p>CGV 의정부태흥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80 센트럴파크</p>
--	--



극장판 스파이 패밀리 코드 : 화이트

감독 카타기리 타카시

출연 에구치 타쿠야, 타네자키 아츠미, 하야미 사오...

개봉 2024.03.20.

'극장판 스파이 패밀리 코드 : 화이트'를 보고 왔습니다.

영화 감상 전 검색으로 이 포스팅에 유입되신 분들은 영화 관련 정보만 챙겨가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 포스팅 상단에는 스포일러 없는 관람객 사전 정보를 몇 개 적어두고, 그 아래에 스포일러가 포함된 감상평을 남기려고 합니다.

▶ 스포일러 없는 관람객 사전 정보 정리

1. 영화 특전

영화 관람 시 제공되는 특전과 매점 특전이 있습니다. 영화관 별로 정리해 봤습니다. 아래 링크 글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극장판 스파이 패밀리 코드: 화이트〉 굿즈 소진 현황판

· 소진 예시 · 굿즈 재고 - 재고 있음 또는 제보 소식 없음 굿즈 재고 - 소량 ...

[muko.kr](http://muko.kr)

영화 〈극장판 스파이 패밀리 코드: 화이트〉 특전 정리 - 키노라...

· CGV\_TTT No.20 \_아이맥스 포스터 \_4DX 포스터 · 메가박스 \_오리...

[m.kinolights.com](http://m.kinolights.com)

〈CGV〉

- TTT(That's The Ticket, 티켓 형태의 시그니처 굿즈) No.20
- 아이맥스 포스터
- 4DX 포스터
- 키팅컵(포저 가족 키팅 4종 중 1종 랜덤 증정)
- 엽서 북 세트





<메가박스>

- 오리지널 티켓 No.106
- 컬렉트 북 & 포토카드 콤보
- 돌비 포스터



<씨네큐>

- 스페셜 티켓 No.159





<롯데시네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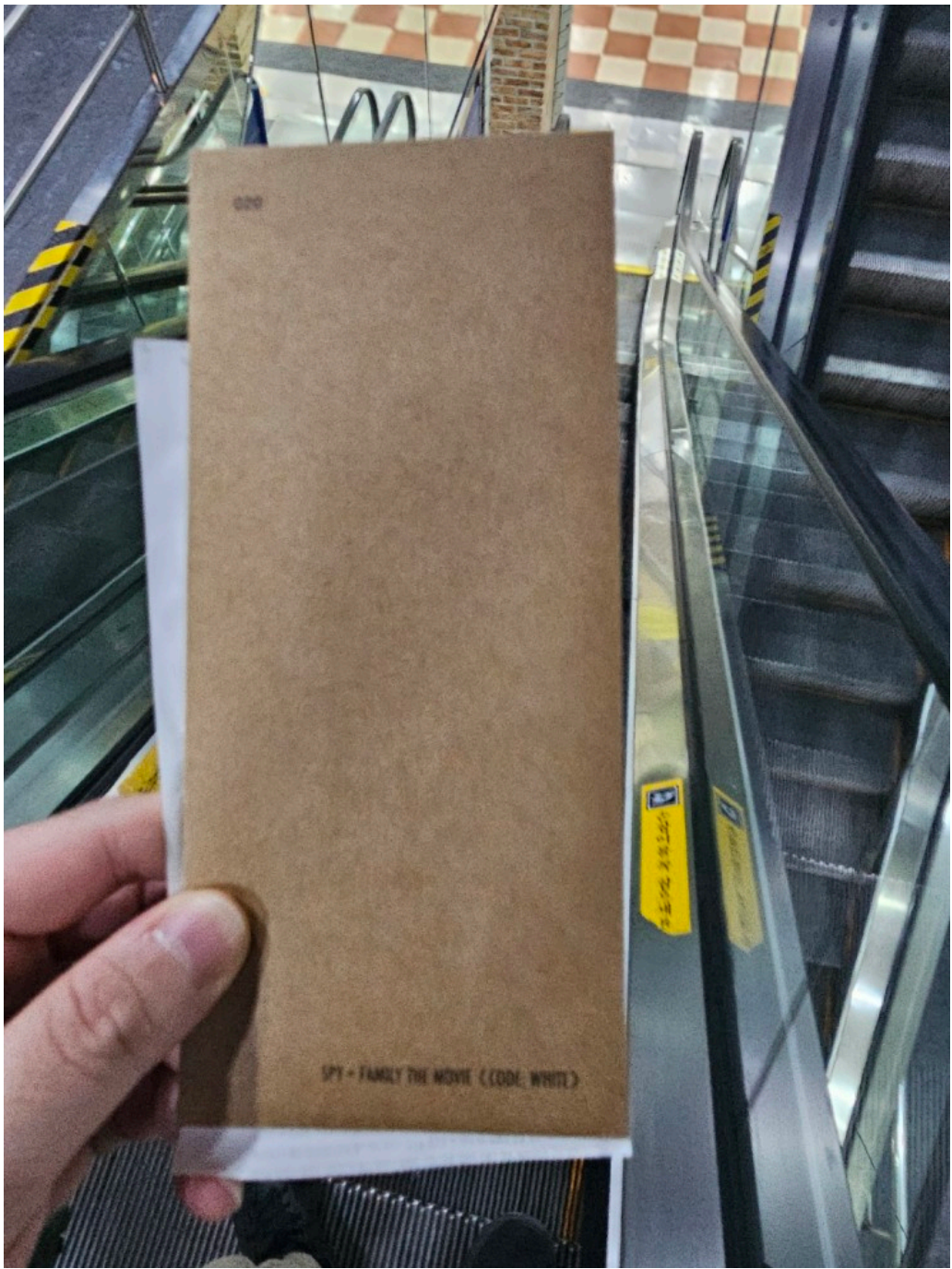
- 시그니처 무비 썸 No.0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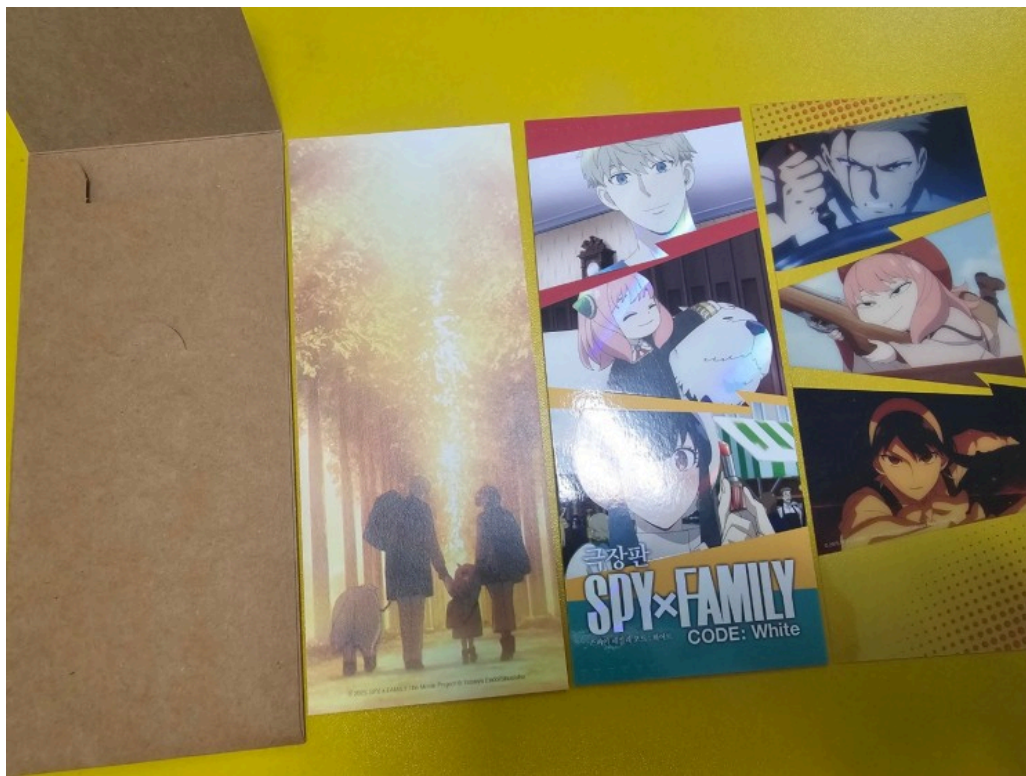


저는 CGV 의정부태흥에서 영화 관람하고 TTT 받았습니다. 영수증 카운터에 드리면 바코드 찍고 주시더라고요. 아마 모르고 갔으면 못 받았을 것 같네요. 영화 보고 손에 뭐 하나 들고 가는 게 여운도 남기고 나쁘지 않습니다. 맛집 가서 밥 먹고 가족 챙겨 줄 음식 포장해가는 느낌. 따로 가방이나 파일을 안 챙겨서 구부러질까 걱정했는데, 단단한 종이봉투에 담아주시더라고요. TTT 자체도 단단하고요.









## 2. 사전 배경지식 필요 유무

당연히 알면 좋겠지만, 굳이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레이션 스피드왜건이 초반에 충분히 설명해 줍니다. 다른 설명 없는 캐릭터 역시 맥락상 이해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비교하자면 <슈퍼 마리오 브라더스>보다 덜 필요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저는 슈퍼 마리오를 그냥 아는 정도로 알고 영화를 보면서 크게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다만 관련 오마주 같은 건 나중에 후기 글 찾아보고서야 알았죠. 스파이패밀리는 만화, 애니메이션 최신화까지 거의 다 챙겨봤는데, 딱히 배경지식 없으면 이해 못 하고 넘어갈 만한 장면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 3. 쿠키 영상 유무



있습니다. 있긴 있는데, 매우 짧아서 오히려 크레딧과 함께 나오는 애니가 더 재밌을 수도 있겠습니다. 다른 영화 쿠키 영상은 어떤지 모르겠으나, '안 보면 후회한다' 정도는 아닙니다. 감이 좋다면 예상까지 가능한 정도.

## ▶ 스포일러가 포함된 감상평

감상평은 좀 편하게 남기고 싶어서 문체를 바꾸겠습니다.

### 1. 영화 관람 전

나는 하고 싶은 것은 넘치는데 그게 행동까지 잘 이어지지 않는 사람. 게으르고 행동력이 부족하다. 그런데 가끔 행동력까지 따라주는 경우가 있다. 이번에 나온 스파이 패밀리 극장판 감상이 그렇다.

영화 개봉일 알고 나서부터 그냥 최대한 빨리 보고 싶었다. 그럼 봐야지 뭐. 늦게 잠들긴 했는데, 쪽잠 자고 일어나자마자 집 근처 굿즈 주는 영화관 중에 제일 빨리 볼 수 있는 곳으로 갔다.

보기 전부터 내용에 기대는 없었다. 내용 뻔할 거 안다. 떡밥 이런 것도 없을 테고, 원작 전개에 전혀 상관없을 걸가지 장편 에피소드일 것이라 예상했고(실제로 그랬다). 이 만화를 본 사람이라면 공감할지 모르겠다. 이 만화는 애초에 떡밥 잔뜩 뿌려서 장기화 빌드업 하는 게 더 평가를 떨어뜨릴 작품이다. 결말이 이미 정해져 있고, 있어야만 하는 만화다. 예전에 감상문 적어둔 게 있는데 애니 다 보거나 만화 완결 나면 다듬어서 블로그에 올려야겠다.

최근에 만화에서 좀 긴 호흡의 에피소드가 한 번 나왔는데, 만화 보는 사람이라면 그거 본다는 느낌으로 극장판을 보러 가면 좋을 듯. 아냐 귀여우시잖아~ 의리로 보는 거지 뭐. 애초에 언제부터 영화를 무슨 대단한 의미를 갖고 해석하면서 봤다고. 이동진 아저씨 빙의한 것도 아니고.

### 2. 영화 관람 중(영화 이야기)

애니메이션과 극장판의 촬영팀 구성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래서인지 그냥 진짜 보기 전 예상대로 장편 애니메이션을 보는 느낌이었다. 만화, 애니메이션, 극장판 모두 그림체가 비슷한 데서 오는 자연스러움이 좋았다. 짱구 극장판을 떠올려보자. 짱구는 극장판, 만화, 애니메이션의 그림체가 조금씩 다르다 보니 각각 확실히 구별된다. 초기 극장판은 그나마 비슷한데, 최근 나오는 극장판은 짱구 캐릭터의 탈을 쓴 배우들이 나와서 연극하는 느낌이 든다. IP만 가져다 쓴 느낌이라고 해야 하나. 내가 짱구 최신 만화, 애니메이션을 안 보고 극장판만 꾸준히 보는 데서 오는 이질감인 것 같긴 하다. 장수 만화 캐릭터 IP에서 작가, 감독 바뀌는 건 어쩔 수 없지.

관람 내내 연신 웃으면서 즐겁게 봤다. 다만 포저 부부가 영화적 허용 MAX의 먼치킨인 걸 감안하고 봐야 한다. 현실적 개연성이 중요한 영화가 아니니까.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로이드의 분장 도구와 분장 속도, 어디서 나오는지 모를 요르의 갈고 점프력, 톰 크루즈도 울고 갈 이룩 중인 비행기 매달리기, 총알 육안으로 보고 피하기 등등. 존 시나나 범 죄 도시 마석도의 무적 선역 기믹 생각하면 된다. 어차피 짱짱 센 포저 가족이 이길 건 아는데, 이들이 나에게 어떤 재미를 어떻게 줄까 기대하면서 봤다.

스토리가 큰 설득력을 가진 영화가 아니라 그런지 초반부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한 맥거핀이 많다. 듣도 보도 못한 낙하산 잡놈이 오퍼레이션 스트릭스 대타라고 하질 않나, 필름 하나 두고 전쟁 시작이다 뭐다 온갖 호들갑을 다 떨지만 결국 다 흐지부지되질 않나. 똥 얘기 실컷 우려먹어놓고는 필름 회수도 못 할 양변기에 싸버렸지만 아무튼 치아에 붙어있었어~ 모든 게 여하튼 뒤처리 잘 됐어~ 이런 느낌이다. 그래도 맥거핀 잘 썼다고 생각한다. 본격적인 중반부 이전에 살짝 늘어지는 듯한 느낌이 있었는데, 해결해야 할 문제가 많은 것처럼 무게감을 잔뜩 줘서 균형이 맞았다. 그래도 불륜은 꽤나 중요한 키워드.

제목부터 '스파이패밀리' 아닌가. 이 만화는 가족 영화의 의지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런데 평범한 가족이 아니라서 재 있다. 이게 짱구, 아따맘마 같은 만화와의 가장 큰 차이다. 스토리부터 남다르다. 같은 고아 소년, 소녀지만 출신상 이념이 다른 두 사람이 고아를 입양하고 가족이 된다. 뭐 하나씩 나사 빠진 가족, 무언가 하나씩은 숨기는 가족, 그러나 서로 배려하고 존중하는 것으로 하나 되는 가족. 이들의 화합으로 아마도 이들의 암울한 유년기, 전쟁의 비극은 후대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다.

다양한 가족의 형태와 함께 이들이 어우러지는 과정을 통해 배려와 존중의 가치를 알려주고, 외관상으로는 완벽한 집 안이지만 속은 혼란 그 자체인 모습에서 외관이 전부가 아니라는 SNS 시대를 관통하는 이 가르침. 나는 이 만화가 전하는 메시지가 매우 마음에 든다. 작가가 의도적으로 이런 구성을 했든 안 했든 내가 해석하는 게 곧 정답이지 뭐. 소... 솔직히 스파이패밀리 극장판 보는 건 자기 계발서 한 권 읽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해요...



연애 바이럴, 결혼 바이럴 아닌가 생각하게 될 정도로 가정에 대한 환상을 잔뜩 심어주는 영화다. 만화에서는 전쟁의 희생양이 된 사람들을 여럿 조명하며 반전 메시지를 던지곤 하는데, 영화에서는 그보다 가족에 초점을 두었다. 조연보다 주연 3인방 위주로 다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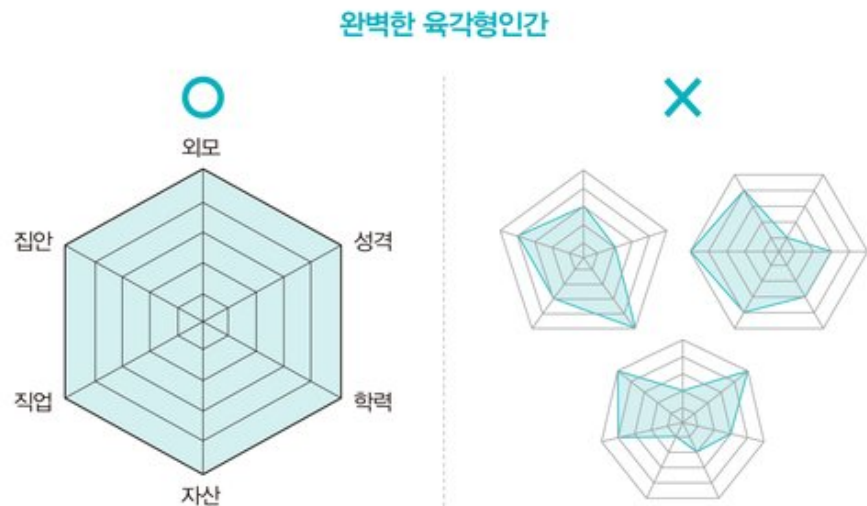
이들은 모두 고아였기에 비밀스러운 모습과 달리 가정에서는 다들 어리숙하다. 심지어 모두 하나씩 비밀을 가지고 있다. 가장 솔직한 모습을 보여야 할 가정에서 비밀을 품고 있다는 것이 아이러니지만, 그것만 빼면 모두 가정에 충실하고 나무랄 데 없다. 의사 아버지에 시청 직원이면 공무원 어머니. 명문 학교에 다니는 딸. 이상적인 가족 그 자체다. 알콩달콩한 부부와 다정한 부자 관계를 보는 데서 오는 즐거움, 마치 완벽한 연예인의 사생활을 보는 것처럼 비밀스러운 모습과는 또 다른 엉뚱한 가정에서의 모습을 지켜보는 즐거움, 이들 가정이 주는 안정감과 포근함이 이 영화의 묘미다.

원작 만화가가 미혼이라 미혼이 꿈꾸는 가정의 로망을 싹 다 집어넣은 게 아닐까. 그래서 너무 좋다. 현실은 '아냐 와 쿠와쿠'가 아니라 육아로 녹아내리는 돈과 시간, 그리고 머리 커질수록 부모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는 '금쪽이 오구오

구'겠지만(셀프 디스중) 뭐 어쩐가. 상상은 자유니까. 대상을 고의적으로 대중적인 편견에 맞게 연출하고 소품처럼 사용하면 '빈곤 포르노'처럼 포르노 갖다 붙이지 않나. 어감이 나쁘긴 한데 좀 세게 말하면 '가족 포르노'라 비판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근데 뭐 어쩐가. 그런 사람이나 나무 인형이 있다면 이렇게 말하고 싶다. 출산율도 낮은 시대에 합법 포르노면 좀 봅시다!

### 3. 영화 관람 후(영화 외적인 내용, 헛소리)

잘 봤다. 적어도 팬들에게는 선물 같은 영화다. 나오자마자 보러 오길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애니메이션 2기 보다 말았는데, 시간 날 때 그거나 마저 봐야겠다.



솔직히 짝 찬 육각형 로이드 아저씨는 이번 생에 무리고, 프랑키 정도만 돼도 행복하지 않을까 싶다. 저 양반은 아마 나중에 피오나랑 이어지는 게 정배, 그거 아니어도 다른 괜찮은 사람이랑 이어질 여지 남기면서 끝날 거 같다. 이 정도 조연으로서의 삶이면 대만족일 듯.

나의 유년기 가족 만화영화는 짱구, 아따맘마였지만 이제 스파이패밀리에게 넘겨줄 때가 됐다. 원작은 빨리 완결 냈으면 좋겠다. 작가 부자 됐으면 좋겠지만, 작품 연재 길어지고 사자에상 시공 넘어가면서 점점 실망하고 싶지도 않다. 만화는 무난하게 완결 내고, 영화만 만화 중간에 있었던 이야기 정도로 설정 잡고 몇 개 더 나왔으면 좋겠다.





사진 클릭 시 원본 링크 이동



사진 클릭 시 원본 링크 이동

그리고 화가 난다. 니케를 체인소맨 컬래버(이하 콜라보)로 알게 되어 시작한 사람으로서의 분노다. 왜 니케는 스파이 패밀리와 콜라보를 하지 않았는가? 이번에 리제로와 콜라보 했는데, 나는 리제로 애니메이션 1화만 보고 하차해서 모른다고... 아냐, 요르 SSR에 본드나 실비아, 피오나 중에 하나 SR로 내면 얼마나 좋아. 아냐는 같은 꼬맹이인 아인 이랑 엮을 수도 있고 스토리 상상만 해도 재밌겠구만. 너무 남성향 게임이라 그런가. 인게임에서 설문조사할 때 콜라보 후보에 있어서 진짜 너무 설렸는데 눈물 난다. 니케 누적 매출 1조 원 넘었으니 앞으로 10조, 100조 벌어서 내년이라도 내놔야 좋겠다.



発売元: 株式会社バンダイ  
© Cygames, Inc.

※監修中のものは、実際の商品と異なる場合がありますのでご了承ください。イラストはイメージです。  
※本画像の一部または全部を無断で複写、複製、転載することを禁じます。

아냐 마치탄 님은 거 같다. 둘이 같이 나오는 2차 창작은 없나? 없어서 아니꼬운 2차 창작물 목록 적어두는 게 있는데, 존버해도 안 나오면 나중에 날 잡고 생성형 AI 돌려볼 생각이다.



사진 클릭 시 원본 링크 이동



그리고 또 하나. 아나는 땅콩이랑 초코 좋아하니까, 땅콩 초코 팝콘과 콜라 콤보를 냈으면 어땠을까. 영화관에서 땅콩 관련 스낵 포함된 콤보는 안 파는 것 같던데, 그런 거 안 해도 잘 팔려서 그런가? 위 사진 우마루처럼 먹고 있는 아나 아크릴 굿즈 하나 끼워 팔았으면 나는 샀다.



집에 있는 아나 굿즈들 감상으로 마무리. 베키 뽑았을 때 아쉬웠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 아나는 친구 하나 붙여줬으니 오히려 좋아.

끝.